

CSU Monthly 2026년 2월호

조선대학교

시대의 진심, 미래의 중심



**CHOSUN
UNIVERSITY**

- 1월 첫째 주: “조선대, 웰에이징 분야 아시아 일류대학으로 키울 것”
- 1월 둘째 주: 조선대 2026정시 경쟁률 6.04대 1... 전년 대비 상승
- 1월 셋째 주: 교무위원 5·18 민주묘역 참배로 2026년 개교 80주년 열어
- **1월 넷째 주: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 ‘자강불식’ 경영 철학 실천, 모교 조선대에 10억 기부**
- 1월 다섯째 주: 조선대학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시신기증자 합동 추모

윤홍근 회장 ‘자강불식’ 경영 철학 실천, 모교 조선대에 10억 기부

교육환경 개선·미래 인재 양성 위해 쾌척



국내 대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제너시스BBQ 그룹 윤홍근 회장이 조선대학교에 발전기금 10억 원을 기부하며 남다른 모교사랑을 실천했다.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는 1월 7일 본관 청출어룸에서 ‘제너시스BBQ 그룹 윤홍근 회장 발전기금 기부식’을 열고 기부의 뜻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부식에는 ▲제너시스BBQ 그룹 윤홍근 회장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김이수 이사장 ▲김춘성 총장 ▲조승환 대외협력처장 ▲김현우 글로벌학부장 등 주요 보직자와 ▲제너시스BBQ 윤경주 부회장 ▲정광열 부회장 등 주

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조선대는 이번 발전기금을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활용해, 미래 사회를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윤홍근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그 성과를 미래 세대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제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조선대학교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이수 이사장은 “윤홍근 회장님의 경영 철학과 2030년을 향한 비전을 통해 개교 80주년을 맞은 조선대의 올해가 더욱 뜻깊은 해로 다가온다”며, “이러한 도전이 조선대학교의 발전과 조선대인의 자긍심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춘성 총장은 “늘 모교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선배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회장님의 굳건함은 우리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이 되고, 조선대학교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2026년 “자강불식(自強不息·스스로를 단련하며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의 실행력으로 세계 1등 프랜차이즈 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제너시스BBQ 그룹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인재 육성과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으로써 미래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조선대학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시신기증자 합동 추모

기증자 18명과 유가족에 감사 전해
시신기증을 통한 의대교수의 마지막 교육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의과대학이 1월 20일 해오름관에서 2026학년도 시신기증자 합동 추모식을 열고, 기증자와 유가족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조선대 의과대학은 2004년부터 매년 시신기증자 합동 추모식을 개최하며, 생명의 가치와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의료인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추모식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조선대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한 18명의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기증자 유가족을 비롯해 조선대학교 김춘성 총장, 강희숙 부총장, 의과대학 해부학교실과 치과대학 구강해부학교실 교수진, 의과대학·치과대학 학생, 직원 등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

추모식은 의과대학 최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추모묵념 ▲김춘성 총장과 안영준 의과대학장의 추모사 ▲정윤영 주임교수(해부학 교실)의 ‘시신 기증과 추모식의 의미’ 강연 ▲유가족 및 후임 동료 교수의 ‘하늘에 쓰는 편지’ 낭독 ▲학생대표의 추모문 낭독 ▲학생 일동의 추모곡 합창 ▲헌화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전 의과대학 해부학교실故 문정석 교수와 예방의학교실故 김양옥 교수가 시신기증을 통해 의대 교수

로서의 마지막 가르침을 실천했다. 조선대 의대 교수의 시신기증은 이번이 첫 사례로, 추모식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또한 두 교수의 제자인 해부학교실 정윤영 교수, 예방의학교실 류소연 교수가 각각 편지를 낭독하며 스승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김춘성 총장은 추모사를 통해 “시신 기증자분들의 숭고한 나눔이 없었다면 오늘의 의학교육도, 미래 의료 인재 양성도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희생과 뜻을 가슴에 새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학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안영준 학장은 “시신 기증을 통해 의학교육에 큰 뜻을 남겨주신 기증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증자 한 분 한 분의 뜻이 의학교육의 현장에서 울곧게 이어질 수 있도록, 생명의 가치를 아는 의료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 학군단 출신 4명, 소장·준장 동시 진급... 이례적 기록

민립대학이 키운 인재, 국가 안보 핵심으로



89학번 독일학과
박민영 소장



91학번 전기과
서필석 준장



94학번 우주항공학과
김희찬 준장



94학번 사회체육학과
황주봉 준장

한 대학 학군단 출신 4명이 동시에 소장·준장으로 진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조선대학교 118학군단이 이번 2026년 1월 군 장성 인사에서 주목받았다.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는 지난 1월 9일 단행된 정부의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조선대학교 118학군단(ROTC) 출신 4명이 소장·준장으로 진급하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인재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소장·준장급 진급과 주요 보직 인사를 통해 군 전투력 강화와 미래 전장 대비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출신과 병과에 구애받지 않는 ‘일하는 인재’ 중심의 선발 기조가 반영됐다.

이 가운데 조선대학교 118학군단 출신인 ▲박민영 소장(89학번, 독일학과·준장에서 소장)과 ▲서필석 준장(91학번, 전기과·이하 대령에서 준장) ▲김희찬 준장(94학번, 우주항공학과) ▲황주봉 준장(94학번, 사회체육학과)이

진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전투 부대 지휘 및 핵심 참모 보직을 맡게 될 예정으로, 조선대가 길러낸 인재들이 군 조직의 중추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대 관계자는 “이번 진급은 조선대가 추구해 온 실천적 교육과 책임 있는 리더 양성이 국가 안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며 “민립대학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학교는 앞으로도 학군단을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리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형 인재를 길러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instagram



facebook



blog



youtube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참여 안내

참여방법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약정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다운로드하여 우편, 이메일, 팩스 송부

계좌안내

신한은행 100-036-638130(예금주: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문 의

조선대학교 홍보팀(062-230-6234/ fund@chosun.ac.kr)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

☎ 062-230-6490 E-mail: cupress@chosun.ac.kr